

News

당정,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 '다주택자 세금 폭탄'

파이낸셜뉴스

이번 대책에는 중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을 낮추거나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가 납부하는 중부세액을 늘리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져...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1년 미만 주택 매매 시 양도세율 최대 80%를 적용도 검토...

금융위원장 "잔금대출 종전처럼 LTV 70% 적용...곧 발표"

연합뉴스

은성수 위원장, '6·17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잔금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과 관련해 "(계약 당시) 예상 가능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인 70%로 (대출)해주려 한다" 새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았을 당시 예상하지 못한 대출 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소연한 데 따른 보완책 마련

코로나궤 대출 부실 경고음...방파제 더 높이는 시중은행

서울경제

국내 은행들이 2·4분기 총여신 대비 대손충당금을 1·4분기보다 최대 15%가량 늘릴 것으로 보여...은행별로는 500억~1,000억원가량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 최근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에 2·4분기 대손충당금 적립을 1·4분기보다 10~15%가량 확대할 것을 주문...내년부터 예상되는 부실 리스크를 대비한다는 판단

은성수 하나금융 중간배당에 부정적 태도, "자본건전성 유지해야"

비즈니스포스트

은성수 금융위원장, "판단은 하나금융이 할 것...올해 은행이 자본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미국과 영국, 유럽 금융당국도 올해 금융회사의 실물지원 역할이 중요한 만큼 배당 자체 권고...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이 배당을 조심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

'민식이법'이 쏘아올린 운전자보험...200만 몰렸다

머니투데이

보험업계에 따르면 4월부터 6월까지 3달 간 주요 손해보험회사의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약 211만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약 80만 건에 비해 2배 이상 급증 DB손해보험이 약 62만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8만건에서 3배 이상... 현대해상도 약 10만건에서 36만건...삼성화재는 8만8,000건에서 31만5,000여건으로 확대

거리두기 약해지고 국내여행 늘자 후보험 손해율 다시 증가

조선비즈

지난달 국내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손해율 평균은 91.3%(가마감)로 전월 대비 4.6%p 급증...손해율이 90%대로 올라선 것은 코로나가 시작된 1월 이후 5개월 만 국내 자동차보험 상위사인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의 6월 손해율은 가마감 기준 85~85.5%로 전월 손해율 81.5%에 비해 4%p가량 증가

삼성생명·삼성화재, 요지부동 보험 약관대출 금리 대폭 인하

데일리안

국내 최대 생명·손해보험사인 두 회사는 물론 보험업계 전반에서도 최근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 수년째 요지부동이었던 약관대출 금리에 균열을 내는 움직임이란 점에서 주목 지난 5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국내 보험사들이 금리연동형 보험계약대출에 적용한 가산금리는 평균 1.82%로 지난해 말(1.84%)보다 0.0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

우선주 유통주식수 늘려 추가 급변동 막는다

연합뉴스

금융당국, 국내 증시에서 우선주 유통주식 수 증가를 위해 우선주 진입·퇴출 기준을 강화...유통주식 물량이 적어 작은 금액으로도 주가가 요동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 현재 상장주식 수 50만주 이상,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이면 우선주가 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기준이 각각 100만주 이상, 50억원 이상...상장주식 수 기준을 보통주(100만주)와 맞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